



별을 세러 떠나는 밤

모두가 잠든 밤, 작은 곰인형이 살포시 문을 나섰어요.



꼭신한 이끼 길을 걸어요

발밑에 닿는 꼭신한 이끼가 밤의 산책을 반겨줍니다.



나뭇가지 사이 반짝인 빛

우듬지 틈새로 아득한 밤하늘의 보석들이 얼굴을 내밀어요.



하나씩 세어보는 별들

손끝을 뻗어 은하수를 따라 하나둘 소중히 헤아려 봅니다.



어느덧 밀려오는 졸음

밤하늘 별자리를 다 세기도 전에 눈꺼풀이 스르르 무거워져요.



별빛 품고 잠들어요

마음속에 별들을 가득 담은 채 포근한 꿈나라로 떠납니다.